

# 미·일 상호관세 무역협상 완료...25%→15%로 낮춰

## 미국-일본 무역 합의

7월 22일(현지시간)

### ● 일본 → ● 미국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7월 7일 공개 관세서한 **25% → 15%** 관세 적용

대미 자동차 추가 관세 **25% → 12.5%** 적용 (기존 세율 2.5% 합산시 15%)

대미 투자 **→ 5,500억 달러 규모(약 759조 원)**

### ● 미국 → ● 일본

상호관세 **→ 15%** 관세 적용

자동차, 트럭, 쌀, 일부 농산물 등 **→ 시장 개방**

트럼프, 필리핀과는 19% “일, 자동차·트럭·쌀 등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상호관세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 ◇미일 상호관세 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7일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세 서한’을 공개할 때는 이를 25%로 1%포인트 높인 바 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관세는 12.5%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초점을 맞춰온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돼 왔던 2.5%를 합친 15%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가 유지됐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대미 무역 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며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상호관세 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과의 무역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아름다운 방문이었다. 우리는 필리핀이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협정을 맺었다”면서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필리핀에 대해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포인트(p) 인하한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 관세율과는 동일하며, 베트남에

대한 관세율 20%보다는 1%p 낮다. 다만 당초 지난 4월 필리핀에 대해 예고한 1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향해 “매우 훌륭한 상대하기 힘든 협상가”라면서 그를 맞이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훌륭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이 이번엔 관세율을 1%p 낮춘 것이 “매우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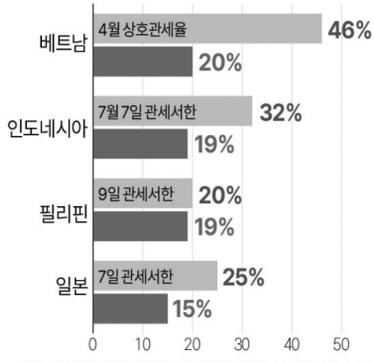
그는 협상 결과가 필리핀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나쁜 질문에 “글쎄, 협상은 원래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고 관세율을 1%p 낮췄다”고 덧붙였다.

또 미중 간 관계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우리의 외교 정책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항상 미국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최근 미국 무역합의 국가 적용 관세율

미국으로 수출시 적용 관세, 무역합의 순



\*영국은 5월 8일 당시 무역협상에서 영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 인하, 상호관세는 10%로 유지

## 日 언론 “이시바 총리 내달 말 퇴진 의사”

자민당 29일 선거 검증 개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으며 이런 의사를 이미 주변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의 패배 원인 등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내달께 검증할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퇴진하려 한다는 이야기로 분석된다.

또 퇴진할 경우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활동

을 이미 시작했다.

여기에 미일 관세협상 타결 상황 등도 이시바 총리의 거취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고 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 AI 인재 ‘쟁탈전’...MS, 구글서 20여명 무더기 영입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으로 빅테크간 AI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수개월간 구글의 AI 조직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원을 대거 영입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가 데려간 인원은 약 20여명에 달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구글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최근까지 AI 모델 제미니가 이시바의 이직을 이끈 엔지니어링 부사장 아마르 수브라마니안은 자신의 링크트인에 MS의 AI 조직 부사장(CVP)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구글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딥마인드에서 수석 엔지니어 및 디렉터로 활동한 애덤 새도브스키도 MS로 이직해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엔지니어링 리더였던 소날 굽타도 링크트인 프로필을 통해 MS AI 팀에 합류했음을 알렸다.

영입된 이들은 무스타파 솔레이만이 이끄는 MS의 AI 조직에서 AI 모델 코파일럿과 검색 엔진 성능 강화하고 제품에 접목할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한다.

솔레이만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였다. 2014

년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구글에 합류해 근무했다.

이후 2022년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를 옮겼고, 2023년 MS에 영입되면서 인플렉션 연구원들을 대거 데려왔다.

현재 구글 딥마인드는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끌고 있다.

MS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달 초 전 세계 인력의 약 4%에 해당하는 9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AI 인재는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 ‘치쿤구니아열병’ 주의보 중 광동성 포산 2000명 확진

세계보건기구(WHO)가 22일(현지시간) 뎅기열-지카바이러스열병과 유사한 치쿤구니아 열병의 세계적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시급히 예방조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WHO의 곤충 매개 바이러스 전문가인 다이애나 로하스 알바레스는 이날 브리핑에서 “치쿤구니아 열병이 널리 알려진 질병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119개국에서 발견·전염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치쿤구니아 열병은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열과 심한 관절 통증 등 증상을 동반한다. 아직 사람 간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다.

그는 이번 확산 양상이 2004~2005년 때와 비슷하다면서, 당시 인도양 섬들에서 번진 뒤 세계적으로 확산해 거의 50만명이 감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연초부터 인도양의 레위니옹-마요트-모리셔스 등에서 발생했고, 특히 인구 88만명 수준인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시아-인도를 비롯해 마다가스카르-소말리아-케냐 등으로 질병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됐다. /연합뉴스

## 미국-필리핀 무역 합의

7월 22일(현지시간)

### ● 필리핀 → ● 미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 7월 9일 공개 관세서한 **20% → 19%** 관세 적용

### ● 미국 → ● 필리핀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 **→ 무관세 적용(관세 0%)**

연방뉴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